



대전 한국타이어제조(주)

한 발이라 불리던 대전은 경부선과 호남선이 갈라지는 교통의 요지로서 국내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이러한 지리적 입지조건을 갖고 있는 최적지역에 세계 5대 타이어 메이커로 도약하기 위해 준비를 착실하게 다져나가고 있는 한국타이어제조(주) 대전공장을 찾았다.

조 용 태 <교육홍보부 과장>

한국타이어제조(주) 대전공장은 극심한 경쟁상황하에 이제는 국가간의 경계는 사라지고 총성없는 전쟁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대외적으로 세계화 전략을 추진하고, 대내적으로는 원가비교우위의 제품 개발을 통해 시장을 선도해 간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방재관리면에서도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97년도 회사의 슬로건을 '글로벌 경영체제 구축'으로 정한 이 회사는 화보협회 대전지부를 통하여 우수방재관리 업체로 추천받아 직접 방문 소개하게 되었다.

● 일반사항

이 회사는 1941년 5월 조선다이아공업(주)로 설립, 1955년 2월 한국타이어(주)로 상호를 변경, 다시 1968년 2월 현재의 한국타이어제조(주)로 2차 상호변경,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국타이어제조(주)는 지난 '96년 창립 55년 만에 처음으로 매출액 1조원을 달성하였고, 세계 최첨단 공장인 금산공장의 1단계 공사를 마무리하고, 해외에도 생산기지를 2개 이상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회사이다.

● 건물현황

현 대전공장의 현황을 알아보기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목상동 100번지에 위치한, 부지면적 307,050㎡에 1, 2공장동 및 본관동을 비롯



해서 총 4개동으로 구성된 불연구조 이상의 건물들로 건축연면적 217,026㎡에 달하는 규모이다.

● 방화시설

공장내 설치된 소화설비로는 기초소화설비인 소화기 1,265대가 각동별, 각 시설별, 위험도별로 분산 비치되어 있으며, 옥내소화전 143개소와 옥외소화전 63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경보설비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어 감지기 숫자만도 7,831개에 달한다.

자동식 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 설비는 자동화 창고에 설치되어 헤드수가 11,188개나 된다.

특히 자위소방대를 운영, 8.5톤 혼재화학 소방차와 4.5톤 경화학차를 보유하고, 별도로 125cc 소방오토바이를 운영 소방호스 15본 적재와 비상

써치라이트를 장착 운행함으로써 유사시에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외에도 앰블런스를 1대 보유하여 안전관리 전반에 빈틈없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방화관리 조직현황

방화관리담당은 부공장장님 산하의 환경안전팀으로 환경안전팀장, 방화관리자, 자위소방대 9명 및 유사시 가용할 수 있는 훈련된 경비요원 25명으로 조직되어 운영된다.

자위소방대는 3인 3교대의 연중무휴 24시간 근무 체제로 실질적인 화재예방의 모든 업무를 실행하고 있다.

교육훈련관계로는 자위소방대 및 전사원의 소방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관할 소방서와 연 2회 종합훈련을 실시하고, 신입사원 교육과정에 소방교육 2시간, 기존사원 직무능력 향상 교육과정에 1시간을 배정하여 교육하고 있다.

또한,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를 위해 매일 현장지도 및 단속활동과 매주 휴무시 협력업체 공사현장 소장의 소집교육을 실시하며, 월 1회 모든 용접기의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전사원의 초기화재진압 능력 향상을 위해 매일 현장에서의 정상작업중 메시지를 통한 실제 화재에 대응하는 실기능력을 평가하고 있으며, 훈련참가자 전원에게는 가정용 할로겐 소화기를 지급하여 사원 가정의 복지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 경영진의 소방·방재에 대한 관심

경영진의 소방에 대한 관심은 무엇보다도 평상시 업무활동에서 생산·안전활동을 중첩하여 관리하는 상황에서도 엿볼 수 있다고 한다. 항상 안전이 우선시 되며 생산과 안전중 어느 것이 우선인지를 논할 필요조차 없다고 한다.

그 예로서 화재예방을 위한 사항에는 한 번도 예산문제로 업무를 중단해 본 적이 없었고, 오히려 추진 사항이 부족하지 않도록 보완 지시를 받는 것에서도 관심도를 알 수 있다고 한다.

모든 방재시스템은 설비의 실수에 대비한 추가 보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화재위험을 초래하

는 사항에는 결코 처리절차에 특례를 두지 않고 엄격히 처리하고 있다.

● 화재예방 업무

화재예방은 결코 소방설비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구성원 각자의 안전의식이 필요하다는 의식하에 특히 방화관련 분야 종사원의 위기의식과 책임의식이 절대적으로 좌우한다는 인식을 갖고 실행하고 있었다.

또한, 방화관리를 위해 하루 하루를 보내는 사람은 생명을 던져 필요시 순직할 각오를 바탕으로, 결단코 안전을 위해서는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는 고집으로 회사를 위한 대명제의 달성을 위해 하루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긍지와 보람, 사명감이 필요하다고 한다.

협회에서 통상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안전점검수검시 자체계획에 의해 실시해온 업무에 관한 자량을 하다가도 새로운 시각과 기술로 점검하여 평가받을 때는 살짝 얼굴이 붉어지게도 되지만 기술적 자문과 점검내용에 대해 대단히 고마워하게 됐다고 한다.

끝으로 회사의 자량을 들여보았다.

이 회사는 각 분야의 담당들이 전문가적인 대우를 받고 있으며, 특히 안전관리분야는 더욱 그러하다.

소방 및 안전분야의 모든 사규는 그 책임과 권한이 담당자에게 일임, 필요시 모든 것이 반영되도록 하여 담당자가 일개 사원이 아닌 법에 의한 최고 경영자의 법정 대리인이라는 지위를 부여하는 분위기로 이끌어 주어 담당자들의 자부심이 대단하였다.

이렇게까지 담당 사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자량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도록 경영을 하고 계신 한국타이어제조(주) 대표이사 사장님 이하 담당임원산하에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환경안전팀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비전있는 기업이 안전관리 전반에도 빈틈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부러움을 느끼며 다시 한 번 찬사와 격려를 드린다.